

수피아여고 농구 이해란, 전체 1순위로 삼성생명 입단

광주 수피아여고 농구부 이해란(18·182.6cm)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었다.

이해란은 이미 1학년 때부터 프로 드래프트 1순위로 꼽힐 정도로 빼어난 기량을 유지했다.

삼성생명은 8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2021-2022 신인 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이해란을 영입했다.

수피아여고 졸업 예정인 센터 이해란은 2021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안컵 국가대표 예비명단에 포함됐고, 지난달 헝가리에서 열린 FIBA 19세 이하(U-19) 월드컵에도 출전해 활약한 바 있다.

신장이 큰 편임에도 스피드와 돌파 등이 두루 좋다는 평가를 받는 기대주다.

원래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정규리그 5, 6위 팀이 이번 선발회의 1~2순위 지명권을 두고 추첨하게 돼 있었지만, 삼성생명은 비시즌 단행된 트레이드를 통해 1순위 지명권을 확보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6위 부산 BNK에 김한별을 내주는 대신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고, 5위 부천 하나원큐와는 구슬과 강유림을 맞교환하면서 1라운드 지명권도 먼저 나오는 순번을 갖기로 해 순위 추첨 전부터 1순위가 확정된 상태였다.

예정된 1순위 지명권으로 삼성생명은 이번 없이

아시아컵 국가대표 예비명단 포함
올해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
"이번 시즌 1군 데뷔 자신있다"
살 찌우고 웨이트·힘 늘릴 것

'최대어'로 꼽힌 이해란을 지명했다. 담양 출신인 이해란은 광주우산초·수피아여중을 나왔다. 어렸을 때 육상을 한 탓에 스피드와 순발력, 지구력은 물론 기초체력까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플레이는 물론 신장이 좋고 윙스팬(wing-span, 양팔을 벌린 길이)도 길어 일찌감치 프로 농구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가대표 팀 15살 막내로 출전한 이해란(당시 수피아여중)은 2018년 U-18 대회에서 활약해 대표팀의 본선행을 이끈 주역이다.

이해란은 5경기에 출전해 1경기당 평균 25.4분을 뛰는 동안 평균 7.4점, 공격리바운드 2.6개, 수비리바운드 4.6개를 기록했다. 이런 활약 덕분에 FIBA 19세 이하(U-19) 월드컵에도 출전했다.

이해란은 "저를 뽑아주시는 구단 관계자분들과 감독,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

와주신 선생님들과 묵묵히 지켜봐 준 가족,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수피아여중·고 동기와 후배들에게도 고맙다"며 "팀에 도움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란은 "이번 시즌 1군에 데뷔할 자신이 있다"면서 "살을 찌우고 웨이트와 힘을 늘려서 밀리지 않게 준비하겠다. 개인 연습으로 드리블과 슛 감각 등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프로 선배 중 꼽은 '롤 모델'은 배혜윤과 김정은이다.

이해란은 "안쪽과 외곽에서 모두 플레이하는 게 저와도 맞다고 생각한다. 멋진 플레이를 본받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

임근배 삼성생명 감독은 "뽑고 싶은 선수를 뽑아서 기분이 좋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해란은 고교 시절엔 센터로 활약했으나 임 감독은 이해란을 전천후 포워드 자원으로 키우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임 감독은 "이해란은 운동 능력이 좋아 조금만 가르치면 충분히 올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마인드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다"면서 "우리는행의 박지현·최이샘을 합해 놓은 스타일로 방향을 잡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ju.co.kr·연합뉴스



이해란

'10대 돌풍' 페르난데스 4강 진출 파란

US오픈테니스...스비틀리나 꺾어
남자 단식전 메드베데프 4강 선착

열아홉 살인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가 엘리나 스비틀리나(5위·우크라이나)를 잡고 현역 선수로는 가장 어린 나이에 메이저 테니스대회 준결승에 올랐다.

페르난데스는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750만 달러·약 674억원) 9일째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스비틀리나에게 2-1(6-3 3-6 7-6(7-5))로 이겼다.

오사카 나옴이(32강·3위·일본), 안젤리코 케르버(16강·17위·독일) 등 한 때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강자들을 꺾고 8강에 오른 페르난데스는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 준결승에 오른 경험이 있고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 단식에서 16차례 우승한 스비틀리나까지 제압하며 겁 없는 신예의 질주를 이어갔다.

페르난데스는 이전까지 메이저 대회 32강(3회전)이 최고 성적이었고 WTA 투어 대회에서는 딱 한 번 우승했다.

2002년 9월생인 페르난데스는 2005년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US오픈 준결승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또 현역 선수 중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진출한 최연소 선수가 됐다.

다만, 대회 8강에 오른 2002년 11월생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다음 날 준결승에 오른다면 이들 두 기록의 주인은 하루 만에 바뀌게 된다.

페르난데스는 또 1984년 준결승까지 오른 칼링 바셋세구소(은퇴), 2019년 우승을 차지한 비앙카 안드레스쿠(7위)에 이어 캐나다인으로서는 3번째로 US오픈 준결승에 올랐다.

페르난데스는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9위·체코)를 2-0(6-1 6-4)으로 제압한 아리나 사발렌카(2위·벨라루스)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두 선수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남자 단식에서는 10대 돌풍이 끊겼다. 2003년생으로 18세인 카를로스 알카라스(55위·스페인)가 부상으로 펠릭스 오제알리아심(15위·캐나다)에게 기권 패했다.

알카라스는 게임 스코어 0-1(3-6)으로 뒤진 채 맞은 두 번째 게임에서 세트 스코어 1-3으로 밀리던 중 다리에 통증을 느껴 경기를 중단했다.

알카라스는 트레이너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기권했다.

올해 월블던에서 8강에 오른 게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던 오제알리아심은 행운이 섞인 승리로 처음 결승 문턱을 밟았다.

오제알리아심의 다음 상대는 앞서 예선 통과자인 보티 판디잔츨프(117위·네덜란드)의 돌풍을 3-1(6-3 6-0 4-6 7-5)로 잠재우고 준결승에 선착한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다.

테니스 '차세대 에이스' 선두주자인 메드베데프는 메이저 대회에서 2차례 준우승에 올랐다. 특히 US오픈에서 2019년 결승, 지난해 준결승까지 오르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연합뉴스



8일 뉴욕에서 열린 2021 US오픈 테니스 8강전에서 캐나다의 레일라 페르난데스가 우크라이나의 엘리나 스비틀리나를 상대로 공격을 성공시킨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김광아 회장직무대행 등 임직원들이 8일 복싱, 펜싱, 양궁 등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해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훈련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10월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무관중 개최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에서 다음 달 개최하는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 종목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회 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참가 선수 안전을 위해 모든 종목 경기를 관중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장에는 해당 종목 출전 선수와 코치진, 심판 등 경기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한다.

개회식 초청 인사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애초 1000명 이상 초청하려고 했으나 250명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 입장 선수단 규모도 사·도별 30명 정도로 축소하기로 했다.

선수단은 대회 참가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전용 차로 대회 개최지로 이동하고 사흘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야외 측은 경기장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매일 2회 이상 소독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장은 이를 이상 폐쇄한다.

전국체전은 10월 8일부터 구미 등에서 7일간, 장애인체전은 10월 20일부터 6일간 연다.

전국체전에는 선수와 임원 2만6000명, 장애인체전에는 9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성과 평가 2위

전남도체육회가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도체육회(회장 김재우)는 8일 "대한체육회가 평가하는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성과평가에서 총점 80.35점을 획득,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북(81.40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평가는 매년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발전과 성과 달성을 위해 시행한다.

전남은 사업 운영능력(50점 만점)에서 38.46점, 참여자 만족도(20점)에서 16.32점, 지도자 업

무성과(30점)에서 25.58점 등 총점 80.35점을 받았다.

지난 2017년 5위, 2018년 8위, 2019년 4위의 성적을 각각 거뒀던 전남은 이번 평가에서 2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농어촌형 그룹에서 화순군체육회가 총점 92.77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도농복합형 그룹에서 나주시체육회가 총점 87.03점으로 2위, 순천시체육회가 총점 83.56점으로 5위에 올랐다.

한편, 광주 북구체육회는 지도영상 홍보성과 부분에서 18만5205건을 홍보, 전국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싱크홀
2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인질
3관	인질, 싱크홀
4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5관	모가디슈
6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9관	건짜우더 밀크셰이크, 코다, 죽을 때까지
7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싱크홀, 슈퍼문
8관	씨네커풀 좋은 사람, 인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서사무엘 UNITY
일시 : 2021. 09. 14.(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11시 음악산책 6
김가온의 Thanksgiving Day
일시 : 2021. 09. 24.(금)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